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과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 비교

박혜숙*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방 소재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상으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Rasch 측정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본다. 한국인 대학생 대상으로 개발한 인지, 정의,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다문화 수용성 척도 타당화에 사용된 문항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중국인 학생들이 느끼는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과 한국인 대학생이 평가하는 자신들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비교한다.

원점수에 있어서 한국인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각하는 수준보다 더 높다. Rasch 측정모형을 사용하여 하위영역에 대한 단일차원여부를 살펴본 결과, 두 그룹 간 동일하게 다문화 수용성 하위척도를 이루는 문항은 인지적 측면의 인권관련 척도로 나타난다. 해당 구인을 이루는 문항들을 비교한 결과,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하여 한국인 대학생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인 유학생이 지각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평가는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개인의 배경에 상관없이 생명존중에 대한 생각은 중국인 유학생들에 비하여 한국인 대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제어] Rasch 측정 모형, 다문화 수용성, 중국인 유학생

박혜숙 (E-mail: parkhyes@honam.ac.kr)
학위취득대학: Michigan State University
현직: 호남대학교 조교수

논문접수일 : 2016년 10월 04일, 논문수정일 : 2016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6년 11월 25일

A Comparison of Chinese and Korea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Koreans' Multicultural Receptivity

Park, Hye-sook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Chinese and Korea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the level of Koreans' multicultural receptivity. A multicultural receptivity survey was originally validated for determining and measuring Korean students' multicultural receptivity based on its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It was translated into Chinese to investigate Chinese students' perceptions of Korean multicultural receptivity. In general, Korean students' self-evalu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Chinese observers as reflected in raw score responses. Using the Rasch measurement model, unidimensionality on the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aspects of items was checked separately. Only three items related to the human rights of cognitive domain showed a similar pattern (unidimensional) in both groups. On an item related to the participation of disabled individuals in society, Chinese students' perception of Koreans' support outpaced the stated attitudes of Korean students. On an item related to Koreans' respecting human life regardless of one's background, Korean students' expectations were higher than Chinese students' perceptions.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along with methods for enhancing multicultural receptivity and global citizenship in this globalized era.

[Key words] *Rasch measurement model, multicultural receptivity, Chinese students, Korean students*

I. 도입

21세기의 한국인들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 내외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구 구성 비율은 2013년에 이미 3%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출신별 집단 거주지가 출현하고 있어서 한국은 다문화 진입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장미혜 2008; 임도경 2010, 3 재인용).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 한 예로 프랑스 청소년의 폭동 사태는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 청소년들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소외의 그늘에서 있다가 오랜 동안 억누른 분노를 표출하는 형태로 전개 되었다(김진희 2014, 114). 이런 유사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주정 2011, 85).

오랫동안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온 영국, 프랑스, 미국 사회에서의 인종갈등으로 인한 폭동과 소요사태는 다문화적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프랑스, 독일에서는 다문화 정책의 폐기론이 대두되고 있다(김진희 2014, 110-111). 영국의 경우도 시리아 난민을 비롯한 이민 유입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하여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폐쇄적인 사회계층 이동, 높은 실업률과 인종차별에 대한 항거와 불만이 한국사회에도 안 나타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한국사회가 필요했기에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입국이 허용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경험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다문화정책반대카페”에서 볼 수 있듯이 반다문화정서도 확산되고 있다(김진희 2014, 117). 이뿐 아니라 국내의 다문화가정, 국내 거주 고려인, 사할린 한인들도 한국사회에서 소수 집단을 형성하고 있고, 편견과 차별, 인권 침해를 경험하며, 한국 사회에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김진희 2014, 119; 정진아 2009, 60-62).

2016년 8월 출입국관리소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200만 명(전체 인구의 3.8%)을 넘었고,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와 같은 한국국적을 갖춘 외국인이 전체의 12.5%에 이르고 있고 있으며, 거주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 캠퍼스도 예외가 아니다. 전체 외국인 중 유학생은 4.3%에 이르고, 유학생 중 약 60%가 중국인이다.

전통적으로 혈연중심의 단일문화를 고수해온 한국인의 경우, 인종적, 문화적 이질성은 국가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에게 커다란 도전이지만, 그러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자신의 문화적인 배경과 행동을 다른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문화적, 인종적으로 편협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며, 자기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Bank 2008, 2).

또한 자기인식(self-awareness)은 개인의 세계관과 문화적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준다(Freire 1970; Borrero and Yeh 2016, 115 재인용).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공존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다문화 수용성은 인간 존중과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 혹은 시민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기에 신뢰에 기반을 둔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될 수 있다(박혜숙 2014, 7; Matas and Bridges

2008, 3-4). 이런 이유로 다문화 수용성은 공동체의식과 더불어 세계시민의 자질로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Park 2015, 7).

그동안 한국인들의 다문화 사회로의 준비 정도를 살펴보고자 진행된 연구 가운데는 다문화 수용성(박혜숙·원미순 2010; 박혜숙, 2013), 여성가족부(2012, 2015)에서 진행한 다문화 수용성척도, 다문화 감수성(이철현 2013), 다문화 태도(강혜정·임은미 2012), 다문화 역량(김민경 2010; 이병준 2007, 2013)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다문화 수준을 조사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2015)의 청소년과 일반성인 대상 조사결과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53.95로 2012년 조사시보다 2.8점 정도 향상이 되었으나, 유럽국가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보다 약 20점 정도 낮다고 한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활동 참여 경험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

국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묻거나(황성동·임형·윤성호 2012), 인식과 정서적 평가(박혜숙·원미순 2010)에만 초점을 맞추는 연구에서 타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실제 관심 및 행동경향성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도구 개발 등에 관한 연구로까지 확장되었다(강혜정·임은미 2012, 35-38). 이를 통하여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 및 다문화 수용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한국인이 그 조사 대상으로 한국인이 스스로 느끼는 다문화 사회로의 준비 정도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인이 느끼는 다문화 수용성 정도가 같은 시, 공간을 공유하는 다른 외국인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 중 중국인 유학

생의 비율이 가장 높기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특정 지방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한국인이 느끼는 그 수준과 비교하고자 한다.

타인의 시각을 통해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살펴보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한국인의 준비성 정도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며, 추후 다문화 수용성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 관련 교육에도 참고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다문화 수용성 개념 및 척도

21세기 한국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탈북인, 그리고 증가하는 국제 결혼으로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자신과는 다른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문화에 대한 편견 없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개방성과 민감성이 필요하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용어와 개념정의는 연구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비교문화적응성(Kelly and Myers 1995; 김미진·정옥분, 2010, 71 재인용), 다문화 감수성(Chen and Starosta 2000), 다문화 태도(강혜정·임은미 2012), 다문화 수용성(박혜숙·원미순 2010; 박혜숙 2013)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중 다문화 감수성(Chen and Starosta 2000)은 타문화 집단과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소로 보고, 다양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개인이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민감성으로 정의하며(이철현 2013, 133 재인용),

국내에서는 다문화 감수성 증진은 다문화 교육의 목적으로 제안되기도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김정덕·모경환 2011, 195 재인용).

강혜정과 임은미(2012)의 연구에서 개발된 다문화태도 척도에서는 태도를 '상호작용하는 대상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판단의 상태(Fishbein and Ajzen 1975; 강혜정 외 2012, 3 재인용)로서 인지, 정의, 행동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문화에 대한 개념을 세대차, 사회적 지위, 종교, 성적성향, 성, 인종, 종교 등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넓은 개념으로 다문화를 정의하고 대학생 대상 다문화 태도 척도를 개발하고 분석한 결과, 차이인식 요인, 개방과 수용 요인, 그리고 실천 의지로 명명된 세 개의 하위척도를 밝혀냈다.

김미진, 정옥분(2010)은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다문화 수용성을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정의하고 아동대상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개발한 결과,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 편견, 고정관념의 정도, 다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에서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박혜숙과 원미순(2010)의 연구에서, 다문화 수용성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일관성 있게 대처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내적 특성이며,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박혜숙 2013, 2014에서 재인용).

이들에 의해 개발된 척도는 특정 지역의 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 정의, 행동 측면에서 Giles와 Sherman(1982)이 제시한 내용적 측면의 다문화 수용성 개념으로 문항을 재구성하여 타당화한 결과, 9개의 문항으

로 구성된 1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이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타문화에 대한 존중, 어려움에 처해 있는 타인에 대해 그의 배경과 상관없이 원조하는 태도, 다른 배경의 사람들에 대한 동료 의식, 문화나 생활양식이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숙(2013)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문화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었다. 이 연구는 박혜숙, 원미순(2010)의 연구에서보다 더 다양한 측면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지, 정의, 행동 측면의 문항을 추가 개발하고 외적 타당도를 고려하여 Rasch 측정 모형을 이용하여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실시한 결과, 다문화 수용성이 단일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즉 인지, 정의, 행동적 측면의 문항들이 서로 내용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묶여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준비성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지금까지 한국학계에서 몇 건 개발이 되어서 한국인 스스로가 평가하는 다문화 사회에로의 준비도를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동일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에 의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이해하는 연구는 임도경(2010)의 연구를 제외하고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임도경(2010)은 스티븐슨의 Q방법을 이용하여 9명의 외국인 대상으로 외국인 이주민에게 형성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에 관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25개의 Q표본(문항)을 선정하여, 21명의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인종적 배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종에 따라 한국인의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백인 중심의 서양인에 대한 '친한국형'과

동남아시아계 유색인종에 대한 ‘반한국형’ 그리고 비교적 긍정적 감정을 가진 ‘한국우호형’으로 분류되는 것을 밝혀냈다. 한국인은 인종에 따른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세계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외국인이 수학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중국인 유학생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대학들이 세계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한국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으나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만족도가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생활 만족도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대학에 따라 유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 학우에 대한 정서적인 반감이 있다고 느끼는 연구(구자역 2010; 김소영 2013, 26-41)들도 있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들 그들이 살아온 문화와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석해낸 여러 연구(황정미 외 2007, 29)들도 있다. 젊은 세대의 한국인은 다른 문화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나, 그 개방성은 일부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정미경 2008). 하지만 실제 동일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살펴본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박혜숙(2013)이 한국인 대상 다문화 수용성 척도 개발을 위하여 사용한 문항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한국의 한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함께 생활하는 한국인과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파악한다. 또한 동일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한국인 대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한 다문화 수용성과 비교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다음으로는 중국인 유학생이 지각하는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은 한국인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신들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보다 더 높은가를 분석해 본다.

III. 연구방법

1. 참여자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지방 소재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들이었다. 2013년 2학기에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남학생은 98명, 여학생 139명, 그리고 성별 미기재 3명을 포함한 240명의 유효한 자료가 수거되었다. 중국 유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 및 중국유학생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인 대학생은 2012년 1학기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648명의 학생으로 이는 해당 전체 대학생의 약 10%에 해당되었다. 남학생 207명, 여학생 44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대학 교수의 수업 시간에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해당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해당 대학생들의 약 50%에 해당된다.

2. 도구

본 연구는 박혜숙(2012)이 개발한 한국인 대학생 대상 다문화 수용성 타당화를 위하여 개발한 문항이며 인지적 측면(n=14문항), 정의적 측면(n=12), 행동적 측면(n=13)의 3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어로 된 문항은 중국인 원어민 교수와 중국어를 전공하는 한국인 교수의 도움으로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재수정을 거치고 2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항을 점검한 후 설문이 실시되었다. 인지적 문항은 ‘한국인들은 ~알다’, ‘한국인들은 ~이해하다’, ‘한국인들은 ~라고 생각한다’ 라고 바꾸었으며, 정의적 측면의 문항은, ‘한국인들은 ~민감하다’라고 하였다. 반면 행동을 나타내는 용어는 ‘한국인들은 ~참여한다’, ‘한국인들은~표현한다’, ‘한국인들은 ~에 도전한다’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중국인 유학생이 평가하는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나타냈다(박혜숙 2013에서 재인용). 설문은 5점 척도(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학생들의 성실한 반응을 얻기 위해 추가로 ⑥ 해당없음’을 넣었다. ⑥번을 선택한 경우, 결측으로 간주하였다.

3. 분석절차

고전검사이론에 근거한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본 후, Rasch 측정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R(R Core Team 2016)을 이용하여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Rasch 측정모형 분석을 위한 Winsteps 3.68을 사용하였다.

Rasch 측정모형을 이용한 이유는 요인분석을 이용한 고전검사이론을 적용할 경우,

Likert 척도가 등간성을 유지하지 않기에 선형성 가정에 위배되어 객관적인 모수추정이 불가능하다(Boone, Staver, Yale 2014; Wright and Masters 1982). 또한 문항난이도는 표본에 의해 영향을 받고, 개인의 능력 추정은 문항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Rasch 측정모형을 사용할 경우, 선형성 가정을 만족시키는 등간척도로 변형하여 모수추정이 가능하며, 문항과 응답자를 동일한 척도 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전형적인 Rasch 측정모형은 단일차원을 가정하기에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문항들이 단일 차원을 이루는지를 잔차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고전검사이론에 기반한 요인분석을 할 경우, 재타당화(반복가능성 보고자 할 경우)를 하고자 할 경우 중국인의 경우 문항 수 대비 표본수가 작아서 요인분석 결과를 의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평정척도 모형을 활용하여 문항 분포, 피험자의 신뢰도, 적합도 및 해당 문항이 단일차원으로 구성되는지를 점검하였다.

1) Rasch 분석방법

먼저 전체자료를 이용한 분포와 잔차분석을 살펴보았다. 문항들이 단일 차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Rasch 측정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본 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Rasch 측정모형에서는 문항 및 피험자 분리신뢰도(separation indices), 그리고 층화지수(strata indices)를 사용해서 문항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피험자 신뢰도는 각 척도에 의한 피험자 서열의 일관성을 의미하며 문항신뢰도는 특정 피험자 집단에 의한

문항서열의 일관성 정도를 의미한다(김명숙, 설현수 2007, 108; Bond and Fox 2007; Smith 2004).

피험자 또는 문항 신뢰도는 0~1 범위를 가지고 있으나, 지수 값이 비선형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Smith 2004), 분리지수를 사용하였다. 층화지수(strata index)는 $(4 * \text{분리지수} + 1) / 3$ 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측정도구가 피험자 집단의 능력 수준을 몇 개의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별해 줄 수 있는 정도를 제공해 준다(Fisher 1992; Wright and Master 1982; 박혜숙 2013, 460 재인용). 피험자 신뢰도는 고전검사의 검사신뢰도와 유사하다. 피험자 능력 변량, 시험지 길이, 문항선택지, 표본의 수준에 적절한 문항(targeting)에 영향을 받으나 피험자 수에는 독립적이다. 문항의 신뢰도는 문항 난이도 변량, 피험자 수에 영향을 받으나, 시험지 길이, 모형 적합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항신뢰도가 낮은 것은 피험자의 능력을 측정하기에 문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재생성을 의미한다(Linacre 2009, 463-464).

2) 구인타당도 검증

단일차원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Linacre (1998)가 제안한 절차를 따랐다. 첫째, 점이연상관계수를 살펴봄으로써 잘못된 코딩이나, 해당 변수/구인과의 관계가 적합한지를 보았다. 점이연상관계수는 개별문항의 응답점수와 전체 피험자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로서 0.3이하이면 검토대상의 문항으로 간주한다.

둘째, Rasch 모형의 표준잔차에 대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실시한 결과를 점검하였다. 잔차는 1차원성을 가정하는 Rasch 모형이 설명 못한 부분이

며, 잔차 문항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그들이 다른 차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asch 요인분석에서 모형의 설명력이 50% 이상일 경우, 1차원(요인) 가정하며, 문항의 설명력이 $4 * 1^{st} \text{ contrast}(\text{제1대조})$ 보다 더 높을 경우, 제1대조 고유값($1^{st} \text{ contrast} < \text{문항고유값}$, 3.0)이 더 작을 경우는 양호한 정도의 단일차원(요인)으로 볼 수 있다(Linacre 2009; 박혜숙 2013 재인용, 459).

셋째, Rasch 척도의 내·외적합도지수를 이용하여 잘 맞지 않은 피험자와 문항을 진단하였다. 외적합도 지수(outfit mean square)는 피험자의 능력수준에 비추어서 너무 쉬운 문항을 틀리거나 너무 어려운 문항을 맞힐 경우와 같은 이상 문항반응 형태에 민감한 지수를 말하는 것으로, 극소수의 이상반응 패턴으로 인해서 전체 적합도 지수가 부적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내적합도 지수는 피험자의 능력수준 근처의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에 가중치를 둔 것이다(Wright and Masters 1982). 적합도 지수의 적정 범위는 0.5~1.5로짓으로 본다. 0.5 이하는 과적합(overfit)으로 보며, 문항 중복을 점검해야 하고 1.5로짓 이상일 경우에는 부적합(misfit)한 것으로 판단하며(Linacre, 2009; 장소영, 이성영 2013, 7 재인용), 측정의 질을 저해시키는 문항으로 간주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일차원을 이루는 문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문항 제거를 고려하였다.

평정척도의 경우, 척도점수가 증가할수록 각 척도점수에 응답한 피험자의 평균 능력 추정치가 증가됨을 가정한다. 평정척도 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증은 각 해당 범주(category)에 10회 이상의 관찰빈도, 균형 잡힌 평정척도 경계점 증가, 그리고 이웃하는 척도 경계점 간의 거리가 5점 척도인 경우는 최소, 0.81이상 그리고 5.0 이하 인지를 확인함으로써 타당도를

점점한다(김성숙, 박찬옥, 설현수 2009; Linacre, 2000; 박혜숙 2013, 458 재인용).

지), 0.81(정의), 행동(0.80)로 나타났다.

IV. 결과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체자료가 정규분포임을 확인하였다. 기술통계를 살펴 본 결과, 대체적으로 한국인 학생은 중국인 유학생이 지각하는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표1, 2> 참고). 전체자료를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8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전 연구(박혜숙 2013)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단일 요인(차원)이 아니며,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세 개의 요인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다차원 Rasch모형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전체문항을 사용했을 때, 중국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 그룹이 동일한 해석이 되지 않는 점(측정동일성 가정 만족못함)과 R 프로그램을 이용한 요인 분석결과,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가 각각 5개, 7개 요인으로 다르게 나왔고, 전체 그룹을 사용했을 경우, 8개 요인으로 나온 점 때문에, 두 그룹을 함께 분석하지 않았다. 전체자료를 이용한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요인구조가 각각 달랐으며, Rasch 모형이 설명하는 변량은 23.4%로 나타나 단일차원으로 볼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각 그룹별로 인지, 정의, 행동 측면의 문항이 단일 차원을 이루는지를 살펴본 후 각 그룹별 단일차원을 이루는 동일한 문항들에 대한 비교를 하였다. 중국인 학생을 참조그룹으로 한 후 한국인 대학생과 비교하였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인지, 정의, 행동 측면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각각 0.88(인지, n=11), 0.90(정의, n=9), 0.91(행동, n=11)로 나타났으며, 한국인의 경우, 각각 0.81(인

<표 1> 중국인 유학생의 문항의 기술통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a_1	2.61	1.18	0.82	-0.33
a_2	2.93	1.17	0.28	-0.86
a_3	2.97	1.29	0.29	-1.14
a_4	2.94	1.29	0.30	-1.10
a_5	2.89	1.18	0.31	-0.87
a_6	2.91	1.09	0.45	-0.59
a_7	2.88	1.15	0.26	-0.78
a_8	2.77	1.13	0.35	-0.69
a_10	3.16	1.19	-0.09	-1.06
a_11	3.04	1.30	0.18	-1.19
a_12	3.05	1.24	0.09	-1.03
b_1	2.84	1.35	0.52	-1.10
b_4	3.09	1.15	0.03	-0.88
b_5	3.01	1.18	0.28	-0.84
b_6	3.00	1.33	0.29	-1.16
b_7	3.13	1.21	0.18	-1.02
b_8	2.98	1.30	0.23	-1.08
b_10	2.92	1.22	0.43	-0.86
b_11	3.08	1.24	0.17	-1.03
b_12	3.16	1.41	0.09	-1.37
c_1	3.00	1.36	0.28	-1.29
c_3	3.04	1.35	0.38	-1.24
c_4	3.05	1.30	0.32	-1.15
c_5	2.84	1.14	0.40	-0.65
c_6	2.81	1.14	0.42	-0.74
c_7	2.97	1.17	0.31	-0.85
c_8	3.10	1.16	0.20	-0.97
c_10	2.66	1.29	0.52	-0.82
c_11	3.04	1.22	0.26	-1.02
c_12	3.11	1.29	0.27	-1.16
c_13	2.88	1.11	0.52	-0.56

주)a는 인지관련 문항, b는 정의적 측면의 문항, c는 행동적 측면의 문항을 나타낸다.

Rasch 측정모형을 사용한 분석에서는 전체 피험자와 문항분포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 중간 수준 이하의 중복문항은 많으나, 난이도가 높은 즉, 동의하기 어려운 문항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났다.

<표2> 한국인 대학생의 문항의 기술통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a_1	4.24	0.88	-0.89	0.10
a_2	4.23	0.95	-1.30	1.60
a_3	4.16	0.91	-0.82	0.06
a_4	4.06	1.04	-0.92	0.28
a_5	4.06	0.94	-0.77	0.12
a_6	4.14	0.86	-0.64	-0.31
a_7	4.47	0.76	-1.55	2.54
a_8	3.97	0.96	-0.54	-0.35
a_10	4.19	0.91	-0.99	0.59
a_11	4.24	0.88	-0.93	0.22
a_12	4.53	0.81	-1.78	2.76
b_1	3.63	1.03	-0.37	-0.28
b_4	4.40	0.82	-1.30	1.32
b_5	4.37	0.78	-1.06	0.81
b_6	3.77	0.96	-0.37	-0.28
b_7	4.13	0.89	-0.75	0.10
b_8	3.81	0.97	-0.63	0.16
b_10	3.96	0.89	-0.37	-0.55
b_11	3.95	0.94	-0.52	-0.22
b_12	3.99	0.95	-0.63	-0.07
c_1	3.05	0.99	0.05	-0.04
c_3	2.72	1.11	0.11	-0.50
c_4	3.01	0.97	-0.01	-0.02
c_5	3.73	0.91	-0.15	-0.44
c_6	3.89	0.93	-0.35	-0.59
c_7	3.31	1.32	-0.39	-0.88
c_8	3.17	0.93	0.08	0.10
c_10	3.14	1.10	-0.11	-0.50
c_11	3.69	0.95	-0.18	-0.43
c_12	3.18	1.02	0.03	-0.27
c_13	3.70	0.91	-0.06	-0.57

주)a는 인지관련 문항, b는 정의적 측면의 문항, c는 행동적 측면의 문항을 나타낸다.

1. 중국인 유학생

먼저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고,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Coefficient alpha)를 살펴보았다.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는 정규성 가정을 벗어난 것은 없었다. 전체 문항내적일

관성 신뢰도는 0.95(n=31)이었으나, Rasch 척도에서는 단일차원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Rasch 척도가 설명하는 변량은 23.4%로 단일차원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피험자 분리지수는 3.28, 문항신뢰도는 0.91, 문항의 분리지수는 1.96이었고, 문항 신뢰도는 0.79이었다. 문항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문항의 변량이 작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문항들이 많지 않음을 나타내주고 있었다. 특히 인지 및 정의적 특성의 문항들은 상대적으로 유사한 중간이하 난이도(보통이다)의 문항들로만 구성되었다. 하위 척도라고 간주되는 인지, 정의, 행동 측면의 문항들이 각각 단일 척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중국인, 한국인 학생 모두 31개 문항이 단일차원으로 보기는 힘들었다(<표 3> 참고).

<표 3> Rasch 측정모형 잔차분석

	중국인		한국인	
	변량 구분	고유값 변량 (%)	고유값	변량 (%)
전체	49.0	100	7.4	100.0
모형	18.0	36.8	4.4	59.6
피험자	5.4	11.0	4.3	58.5
문항	12.6	25.8	0.1	1.1
설명못 한변량	31.0	63.2	3.0	40.4
1대조	3.5	7.1	1.6	21.5
2대조	2.7	3.3	1.4	18.8

주) 전체 문항은 31개이다.

1) 인지적 측면의 문항

인지적 측면의 문항 11개 문항 중 4번 문항의 내적합도가 1.5보다 커서 삭제한 후, 10

개 문항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Rasch 척도에서는 적합도지수를 이용하였으며, 범위가 0.75에서 1.2안에 있어서 해당 척도가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표 4> 참고).

인지적 측면 임시척도에 대한 응답자의 분리지수와 신뢰도 계수는 각각 2.14, 0.82이었고 문항의 분리지수와 신뢰도는 1.68, 0.74이었다. 또한 피험자 및 문항의 신뢰도를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총화지수¹⁾가 2.57로 나타나 2~3개 그룹으로 설문참여자 집단을 나눌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항의 내용타당도의 기술적(technical) 지표로 볼 수 있는 점이연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낮은 점이연상관계수는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항을 발견하는데 사용된다. 점이연상관계수(point-biserial correlation coefficient)가 0.6이상으로 양호하였다. 비록 경계점 척도(step-order)가 이상적인 간격(0.8~5.0)으로 증가하지는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양호하였다.

잔차분석의 결과, 단일 차원으로 보기가 어려웠다. 즉 모형의 설명량은 50% 미만이었다. 즉 Rasch 측정모형이 설명하는 변량은 47.5%이고, 제1대조의 고유 값이 1.8이었고, 상대적으로 Rasch 모형의 문항 설명력이 제1대조의 변량의 4배보다 더 작았다($25.2 < 4 * 10.4$). 잔차분석 결과, a10, a11, a12이 하나의 하위 척도(인권인식)로 볼 수 있었으며, a1, a2, a7을 다른 차원(다양성 인지)으로 볼 수도 있었다.

제2대조의 고유값도 1.5로 나타나서 무선적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었다. 문항 내적합도가 좋지 않은 4번 문항을 제거한 후에도 여전히 1차원으로 보기에는 힘들었다. 제2대조

의 고유값 변량이 5%가 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두 차원으로 보고, 해당 문항을 사용하여 Winsteps을 이용한 분석을 재 실시한 결과, 해당 문항을 각각의 단일 요인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각 하위 그룹의 Rasch 잔차 분석에서 나타났다(<표 5 참고>).

각 하위 척도에서는 Rasch 모형이 50% 이상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의 문항은 a1, a2, a7은 다양성 인지 측면을 나타내고, a10, a11, a12, 인권관련 인지적 문항으로 볼 수 있었다.

2) 정의적 측면의 문항

정의적 측면은 피험자의 신뢰도는 0.79 분리지수는 1.96이었으나 문항의 신뢰도가 0.42이고 분리지수는 0.85였다. 피험자 신뢰도는 고전검사의 검사신뢰도의 역할을 한다. 문항 12의 내적합도가 너무 높아서 (>1.7), 해당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후 관련 문항 9개를 대상으로 Rasch 모형분석 결과, 문항의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경계점 척도(1, 7번)증가(step-order)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문항의 카테고리를 합치는 작업(예, 1, 2번을 합쳐서, 4개의 카테고리로 만들)을 시도하였으나,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한층 낮아졌고, 내용타당도를 고려하면서 문항의 일차원성을 확보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정의적 측면 문항에 대한 분석 및 그룹 간 비교는 하지 않았다.

문항 1, 6번이 하나의 그룹이고, 문항 7, 11번이 다른 하위그룹으로 볼 수 있었다. 문항의 신뢰도는 0.12(분리지수, 0.38), 피험자의 신뢰도는 0.78(1.89)로 나타났다.

1) 총화지수=(4*분리지수+1)/3.

<표 4> 인지 척도 특성

인지척도	내적 합도	외적 합도	점연상 관	인지 문항 번호
0.23	1.08	1.08	0.65	A_1
-0.02	0.95	0.92	0.67	A_2
-0.13	1.01	1.01	0.64	A_3
0.04	1.13	1.23	0.61	A_5
-0.07	0.79	0.75	0.72	A_6
0.12	0.92	0.94	0.68	A_7
0.28	1.10	1.07	0.64	A_8
-0.19	1.05	1.13	0.62	A_10
-0.17	1.10	1.13	0.62	A_11
-0.10	0.84	0.83	0.70	A_12

주) 전체문항은 10개로 구성됨.

문항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문항 난이도의 변량이 작은 것과 문항의 수가 너무 작아서, 적절하게 피험자의 능력에 적합한 문항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문항들이 단일차원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과 낮은 신뢰도로 인하여 Rasch 측정모형을 사용한 정의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는 할 수 없었다.

<표 5>인지적 척도: 하위요인 잔차 분석

변량구분	고유값	변량 (%)	고유값	변량 (%)
전체	6.7	100	7.4	100
모형	3.7	55.3	4.4	59.6
피험자	2.7	40	4.3	58.5
문항	1.0	15.2	0.1	1.1
설명못 한변량	3.0	44.7	3.0	40.4
1대조	1.6	23.5	1.6	21.5
2대조	1.4	21	1.4	18.8

3) 행동적 측면의 문항

모든 문항을 다 사용한 경우, 모형이 설명하는 변량이 50% 미만이어서 단일 차원으로 보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문항적합도가 좋지 않은 문항을 제거한 행동 측면의 문항 9개(c1, c3, c4, c5, c7, c8, c11, c12, c13)가 다문화 수용성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Rasch 척도에서는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적합도 지수도 0.8에서 1.2안에 있어서 해당 척도가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각 척도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분리지수와 신뢰도 계수는 각각 2.01, 0.80이었고 문항의 분리지수와 신뢰도는 1.89, 0.78이었다. 문항의 총화지수가 2.85로 나타나 2개 혹은 3개 그룹으로 설문참여자 집단을 나눌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점연상관계수(point-biserial correlation coefficient)가 0.65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문항의 평균 경계점 척도(step order) 증가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적합도는 대체로 양호하였다(<표 6> 참고).

본 자료에서는 Rasch 모형이 설명하는 분산이 47.5%였고, 제1대조의 고유값이 1.8이어서(<3> 1차원으로 볼 수도 있었으나, Rasch 모형의 문항설명력((26.7)은 <잔차의 제1대조(=4*10.8(=43.2)보다 더 적었다. 잔차의 제1대조의 수직축을 따라서 부호가 반대방향으로 나타나고, 계수가 0.45이상으로 된 두 문항그룹이 나타났다. 즉 양의 부호를 가진 변수들(1,3,4; 차별에 대한 반대 행동화)과 음의 부호를 가진 변수들(5, 13, 7; 타인과 더불어 생활함)이 있어서 2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두 개의 하위 척도는 각각 모형이 설명하는 변량이 50%가 넘어 단일척도로 볼 수 있었다(<표 7>).

3. 한국인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 수준

우선적으로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하위 요인인 인지, 정의, 행동적 문항의 기술통계와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정규성 가정에 어긋난 문항은 없었다(<표 2>참고).

1) 인지적 측면의 문항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정도이기에 중국유학생에 초점을 둔 분석이어서 해당 문항을 중국인 유학생 자료와의 비교목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6> 행동 측면의 다문화 수용성 문항특성

행동척도	내적합도	외적합도	점연상관	문항번호
-0.02	1.00	0.99	0.70	C_1
-0.16	0.94	0.94	0.70	C_3
-0.12	0.88	0.81	0.73	C_4
0.37	1.19	1.15	0.69	C_5
0.12	1.11	1.10	0.69	C_7
-0.11	0.97	0.96	0.71	C_8
-0.05	0.93	0.90	0.73	C_11
-0.20	0.87	0.88	0.73	C_12
0.18	1.09	1.02	0.72	C_13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해당 인지문항 10개는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alpha=.81$)도는 보통이상 수준이었다. 설문대상자/피험자의 분리지수와 신뢰도는 각각, 1.41과 0.67이었고,

문항에 대한 분리지수와 신뢰도는 각각 4.40, 0.95로 나타났다.

<표 7> 다문화 수용성 행동척도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 및 잔차분석

변량구분	$\alpha=.824$ (문항1,35)		$\alpha=.776$ (문항5,13,8)	
	고유값	변량(%)	고유값	변량(%)
전체	6.7	100	7.1	100
모형	3.7	55.1	4.1	57.8
피험자	3.0	45	3.3	46.5
문항	0.6	9.6	0.8	11.3
설명못 한변량	3.0	44.9	3	42.2
1대조	1.5	23	1.6	21.8
2대조	1.5	21.8	1.4	20.3

해당 문항의 점연상관계수도 0.5이상으로 나타났다. 내·외적 적합도도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8> 참고). 그러나 단일차원으로 보기에 힘들었다. 즉 Rasch 측정모형의 설명력은 34.5%로 나타났고, 잔차의 제1대조에 4를 곱한 값($=4*10.3\%$)이 Rasch 측정모형 변량(17.8%)보다 더 컸다. 잔차분석 결과 상관관계수가 0.35이상인 두 그룹의 문항 즉, a10, a11, a12와 a1, a2, a3로 나타났다. 한국인 그룹과 중국인 그룹의 인지적 측면의 척도가 동일한 것은 a10, a11, a12(인권존중)이어서, 해당 척도를 사용하여 비교하기로 하였다(<표 9> 참고).

2) 행동적 측면의 문항

문항 7과 13의 문항 적합도가 양호하지 않았다. 점연상관계수도 0.45 이상이었지만, 단일차원으로 보기에 좀 무리가 있었다(<표 8 & 9> 참고). <표 9>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Rasch 측정모형의 설명량이 50% 미만일 뿐만 아니라 잔차(=4* 제1대조)가 Rasch 고유값보다 상대적으로 컸다(<표 9> 참고).

높은 잔차는 1차원성을 가정하는 Rasch 모형이 설명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비록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에 있어서는 양호하지만, 한국인 대상으로 해당 인지 및 행동 문항들이 단일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잔차 분석결과 문항 간의 상관관계가 보통이상 높은 두 그룹의 문항 즉, 문항 c7과 c3은 한 그룹에 그리고 c1, c11, c13(일반적인 특성)은 다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었다. 그 이유는 잔차 제1대조에서의 상관계수의 크기가 0.35이상이며, 각기 반대 부호를 가진 두 그룹의 문항 집단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척도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동일하게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두 그룹이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지 않은 하위척도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단지 하나의 척도만(인지-인권)이 두 그룹에서 하나의 척도로 볼 수 있어서, 해당 척도만을 심도 있게 추가 분석하였다. 앞의 <표 1>과 <표 2>의 기술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문항의 평균은 한국인 학생들이 높았다. 기술통계에서 사용한 척도는 서열 척도이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t-test를 사용하여 두 그룹을 비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간단한 비교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행동측면의 문항인 인종차별(c1), 성적성향(c3), 성차별 편견(c4), 성차별에 대한 항의(c12)을 제외하고 한국인이 평가하는 다문화수용성 척도는 중국인이 한국인에 대하여 지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유일하게 행동문항 3번(동성연애에 관한 관용)에 관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 대학생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스스로가 인지, 정의적 측면인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다

양성 인지에 관하여는 중국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8> 한국인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인지 및 행동 척도 문항

척도	내적 합도	외적 합도	점이연 상관	문항 번호
-0.07	0.93	0.98	0.6	a_1
0.3	1.03	1.11	0.6	a_2
0.08	1.03	1.05	0.6	a_3
0.29	1.13	1.2	0.6	a_5
-0.12	0.84	0.83	0.7	a_6
-0.44	0.8	0.66	0.6	a_7
0.34	1.07	1.07	0.6	a_8
0.14	1.18	1.35	0.5	a_10
-0.13	1.01	1.03	0.6	a_11
-0.39	0.94	1.02	0.5	a_12
0.36	0.88	0.88	0.7	c_1
0.89	1.13	1.13	0.6	c_3
0.49	0.91	0.91	0.7	c_4
-0.77	1.05	1.05	0.5	c_5
0.22	1.46	1.77	0.5	c_7
0.12	0.8	0.78	0.7	c_8
-0.65	1.09	1.09	0.5	c_11
0.15	0.77	0.76	0.7	c_12
-0.82	0.91	0.92	0.6	c_13

주) a로 시작하는 문항번호는 인지적 척도와 관련된 문항, c는 행동적 척도와 관련된 문항임

<표 9>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및 인지 및 행동 척도 잔차 분석

문항	인지(문항10,11,12), $\alpha=.64$		행동(n=9), $\alpha=.79$	
	고유값	변량 (%)	고유값	변량 (%)
전체	5.6	100	15.3	100
모형	2.6	46.6	6.3	41.3
피험자	1.5	26.6	2.5	16.4
문항	1.1	20	3.8	24.9
설명못 한변량	3.0	53.4	9.0	58.7
1대조	1.7	29.4	2.1	13.7
2대조	1.3	23.7	1.5	10

동간척도를 사용한 Rasch 결과인 <표 4, 6, 8>은 각 그룹 안에서 상대적인 문항 난이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지적 측면의 세 문항이 한국인의 경우, Rasch 측정모형이 설명하는 변량은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 및 한국인 대학생 그룹이 동시에 동일한 문항이 하나의 척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그룹을 동시에 분석한 결과, 측정동일성 가정을 만족하였으며, Rasch 측정모형이 설명하는 변량은 60%가 넘어 단일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두 그룹 모두 인지적 측면의 인권관련 문항인 10, 11, 12은 유사한 구조를 보여서 추가적으로 인지적 측면의 세 문항을 비교하였다.

<표 10> 인지적 문항(인권관련) 그룹 비교

그룹	난이도	대조	SE	p	문항
중국인	-.10	-.38	.12	.02	a_10
한국인	.28	.38	.12	.02	a_10
중국인	.06	-.10	.12	.37	a_11
한국인	.16	.10	.12	.37	a_11
중국인	-.01	.44	.11	.00	a_12
한국인	-.44	-.44	.11	.00	a_12

주) 대조는 두 그룹 평균비교와도 같다. 낮은 수치로 난이도(measure)가 나타날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문항 10(장애인), 문항 11번(긴급상황 생명존중), 문항 12번(배경에 상관없이 생명존중)을 나타낸다. 척도의 난이도가 낮은 것은 쉽게 동의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각 문항은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국인 학생들이 문항 10에 대하여 더 쉽게 동의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문항 12번에서는 한국인이 더 쉽게 동의하는 것이 높았다. 즉,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하여 한국인 대학생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인 유학생이 보는 한국사회의 장애인의 사회참

여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한국인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개인의 배경에 상관없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중국인 유학생들에 비하여 한국인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쉽게 동의함).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Giles와 Sherman(1982)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정의에 근거하여 Munroe와 Pearson의 다문화 태도척도(Munro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 2006)를 참고하여 개발한 박혜숙(201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원래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 정의, 행동 측면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측정하고자 개발되었다.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한 지방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설문을 통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각하는 한국인 대학생들의 인지, 정의, 행동 영역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한국인 대학생들이 보고한 자신들의 수준과 비교하기 위하여 Rasch 측정 모형을 활용하였다. Rasch 측정모형은 문항의 난이도나 피험자(응답자)의 능력(ability/trait) 추정이 상호 독립적이기에 객관적인 추정이 가능하고, 전형적인 Rasch 모형은 단일 차원을 가정하기에 구인타당도 분석에 적합하다. 또한 데이터가 모형에 적합할 때, 객관적인 모수추정이 가능하다. Rasch 측정모형을 이용하여 구인타당도를 살펴보고, 특히 영역에 따라 단일 차원을 구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Rasch 측정모형의 잔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인 유학생 대상 다문화 수용성 관련 세 가지 영역 중 인지와 행동 영역에서만 각각 하위 두 개 그룹의 문항이 단일차원을 이루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그룹에게 개념적으로 동일한 문항이 동일한 차이를 이루는 경우는 인지적 측면의 인권과 관련된 인간존중에 관한 다문화 수용성 하위 척도뿐이었다. 이 척도를 이루는 세 문항에 대한 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하여 한국인 대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인 유학생이 지각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평가는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배경에 상관없이 생명존중에 대한 생각은 중국인 유학생들에 비하여 한국인 대학생이 높았으며(문항에 쉽게 동의함) 이는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행동적 측면의 5개 문항을 제외하고 한국인이 평가하는 다문화 수용성 개별 문항에 대한 반응은 중국유학생이 지각하는 것보다 더 높았다. 행동적 측면 차별(c1인종차별, 성차별 편견(c4), 성적성향, 성차별에 대한 항의(c8)에 있어서 한국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과 중국인의 평가가 유사하였으나, 동성연애(c3)에 관한 한국인의 태도에 있어서 중국인이 지각하는 것이 한국인 대학생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전에 박혜숙(2013)이 제안했던 바와 같이 검사도구의 하위 영역별로 한국인 대학생들의 다른 문화에 대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동일문항으로 구성된 하위 요인은 인지적 측면에서 본 인권관련 하위척도 하나였으며, 해당 척도를 이루는 세 문항 중 한국인이 생각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사람들의 배경에 상관없이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두 문항에 있어서 집단 간에 통계적 및 실제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동일한 내용을 묻는 문항이지만, 장애

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문항에서는 중국인들이 지각하는 것이 한국인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명존중에 대한 것은 그 반대로 한국인 학생들의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다른 평가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룹 간 성장 배경과 환경에 기인할 수 있다.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함께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인지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살펴보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엄격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두 그룹 간에 문항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지 않은 점들로 인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한국인의 사고/행동에 대하여 다른 배경의 사람들에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국내 전체 대학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지각하는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다문화 수용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다.

국제교류를 통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60%이상이 중국인 유학생들이다(행정안전부 2014). 유학생들의 국내에서의 경험은 추후 한국에 대한 홍보 대사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유학생들의 경험에 따라서 그와 대조되는 역할도 할 수 있기에 다문화 수용성 제고는 매우 중요하

다. 또한 교사가 학생에게 문화적 자산(cultural asset)으로 생각될 수 있듯이(Borrero and Yeh 2016, 117-119), 세계화 시대의 지역소재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유학생의 존재는 다른 문화를 직,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동적인 문화적 자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갈등요소를 갖고 있기에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인정과 수용은 다문화적 시민의식(Kimlika 2004; Banks 2008) 및 세계시민의식의 제고에도 필요한 요소이다. 즉, 세계화 시대의 시민의식 교육은 이전의 국민국가(nation-state)에서의 정체성을 확대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Banks 2008; Moon 2010).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다양성 및 다른 문화에 대한 인지와 수용에서 비롯된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한 대학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 지각하는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과 같은 대학의 한국인 대학생이 평가하는 자신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보는 것은 한국인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정·임은미. 2012. "대학생용 다문화태도 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13집,4호, pp. 35-57.
- 구자역. 2010. "한·중 양국민간 우호정서 저해 원인 연구 : 국내체류 중국인 유학생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명숙·설현수. 2007. "Rasch 측정모형에 의한 K 비판적 사고성향 검사의 양호도 검증." 『교육평가연구』 제20집, 2호, pp.101-124.
- 김성숙·박찬옥·설현수. 2009. "Rasch 측정 모형을 활용한 유아 리더십 유형 검사 도구 타당화."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4집, 3호, pp.517-556.
- 김소영. 2013. "중국인 유학생의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이용이 반한 감정에 미치는 영향 :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 정옥분. 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제17집,4호, pp.69-88.
- 김민경. 2010.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관한 연구-문화적 인식, 지식,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9집, 6호, pp.945-965.
- 김정덕. 모경환. 2011. "문화성향과 다문화 감수성 관계 연구." 『문화교육연구』 제17집, 3호, pp.193-226.
- 김진희. 2014.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국제 갈등 이슈와 다문화교육의 방향 성찰." 『다문화교육연구』 제7집, 1호, pp.101-129.
- 박혜숙. 2013. "Rasch 측정모형을 사용한 대학생 대상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제27집, 2호, pp.453-477.
- 박혜숙. 2014. "초등 및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제44집, pp.5-33.
- 박혜숙·원미순. 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 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제24집,2호, pp.303-325.
- 이병준. 2007. "다문화역량이란 무엇인가." 『한국교육사회학연구회』 제37집, pp.1-11.
- 이철현. 2013. "다문화교육 강좌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다문화감수성 측정 도구 개발." 『다문화교육연구』 제6집, 3호, pp.131-156.
- 임도경. 2010. "외국인 이주민이 본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 연구." 『주관성연구』 제20호, pp.101-120.
- 정미경. 2008. "주한 외국유학생 현황 및 다문화 인식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 2008-5-22.
- 장소영·이성영. 2013. "Rasch 측정 모형을 이용한 문법 학습전략 도구개발의 타당화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제39집, 4호, pp.253-277.
- 정진아. 2014. "국내 거주 고려인, 사할린 한인의 생활문화와 한국인과의 문화 갈등." 『통일인문학』 제58집, pp.35-65.
- 주정. 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복지행정논총』 21권2호, 81-99.

- 행정안전부. 2014.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http://www.mospa.go.kr>)".2015/10/16.
- 황성동·임혁·윤성호. 201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한국
사회복지학』 제2집, pp.125-150.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 "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http://library.kwdi.re.kr/Search/Detail/49806>, 2016/10/11.

References

- Banks, James A. 2004. "Introduc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Multicultural Societies." In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Global Perspectives*, edited by James A. Banks, 3-16. San Francisco: Jossey-Bass.
- .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th ed. Cranbury NJ: Pearson Education Inc.
- Bond, Trevor and Christine M. Fox. 2007. *Applying the Rasch Model: Fundamental Measurement in the Human Scienc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oone, William J., John R. Staver, and Mellis S. Yale. 2014. *Rasch Analysis in the Human Sciences*. New York: Springer.
- Borrero, Noah and Christine Yeh. 2016. "Using Ecological Asset Mapping to Investigate Pre-service Teachers' Cultural Asset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18 (3): 114-134.
- Chen, Guo-Ming and W. J. Starosta.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s* 3: 1-15.
- Curran, Patrick J., Stephen G. West, and John F. Finch.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Fisher, William P. Jr. 1992. "Reliability Statistics." *Rasch Measurement Transactions* 6 (3): 238.
- Giles, Mary B. and Thomas M. Sherman. 1982. "Measurement of Multicultural Attitudes of Teacher Traine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5 (4): 205- 209.
- Kymlicka, William.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Linacre, John M. 1998. "Detecting Multidimensionality: Which Residual Data-type Works Best?" *Journal of Outcome Measurement* 3 (2): 103-122.
- . 2009. *A User's Guide to Winsteps Rasch-Model Computer Programs*. Chicago: Winsteps.com (<http://www.winsteps.com>).
- Matas, Christian Poyatos and Susan Bridges. 2008. "Multicultural Capital in Middle Schoo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Diversity in Organizations, Communities and Nations* 8 (2): 1-17.
- Moon, Seungho. 2010. "Multicultural and Global Citizenship in the Transnational Age: The Case of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12 (1): 1-15.
- Munroe, Arnold and Carolyn Pearson. 2006. "The Munro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 A New Instrument for Multicultural Stud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 (5): 819-834.
- Park, Hye-Sook. 2015.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over Three Years."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8: 5-25.

R Development Core Team. 2008.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https://www.r-project.org/>.

Smith, Everett V. Jr. 2004. "Evidence for Reliability of Measures and Validity of Measure Interpretation: A Rasch Measurement Perspective." In *Introduction to Rasch Measurement: Theory, Models, and Applications*, edited by Everett V. Smith Jr. and Richard M. Scott, 93-122.. Maple Grove, MN: JAM Press.

Wright, Benjamin D. and Graham N. Masters. 1982. *Rating Scale Analysis*. Chicago: MESA Press.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Chung Jin-A. 2014. "A Study on the Life Culture of Koryosaram and Sakhalin Koreans Living in Korea and Their Cultural Conflicts with South Koreans." *Journal of Humanities for Reunification* 58: 35-65.
- Gu Ja-Oek. 2010. "Research on Factors That Hinder Positive Affective Relations between Koreans and Chinese: Survey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Association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ity.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Hwang Jung-Mi, Kim Yi-Sun, Lee Myoung-Jin, Choi Hyun, and Lee Dong-Joo. 2007. "Survey on Korean Society's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Orienta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http://library.kwdi.re.kr/Search/Datail/49806>. Accessed October 11, 2016.
- Hwang Sung-Dong, Lim Hyuk, and Yoon Sung-Ho. 2012.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 125-150.
- Jang So-Young and Lee Sung-Young. 2013. "Validation of a Survey Instrument for the Grammar Learning Strategy of College Students." *Studies o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39 (4): 253-277.
- Joo, Jung. 2011. "Current State of Policy on Teenager in Multicultural Family and Further Development."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1 (2): 81-99.
- Jung, Mi-Kyung. 2008. *The Current Situation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and Preliminary Research on Korean's Multicultural Awarenes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port OR2008-5-22.
- Kang Hye-Jeong and Lim Eun-Mi. 2012. "Validation Study of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3 (4): 35-57.
- Kim Jin-Hee. 2014. "Analysis on Conflicts and Crises of Multiculturalism in European Countries and Reflections on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7 (1): 101-129.
- Kim Jung-Deok and Mo Kyung-Hwan.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Disposition and Intercultural Sensitivity of Preservice Teachers." *Culture Education Research* 17 (3): 193-226.
- Kim Mi-Jin and Jung Ok-Boon. 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cultural Acceptance Inventory for Korean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7 (4): 69-88.
- Kim Min-Kyeong. 2010. "A Qualitative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Multicultural Competence - Focusing on Cultural Cognition, Cultural Knowledge and Cultural Skill."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9 (6): 945-965.

- Kim Myeong-Sook and Seol Hyun-Soo. 2007. "A Study for Validation of K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est Using the Rasch Measurement Model."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0 (2): 101-124.
- Kim So-Young. 2013.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Media Use on Chinese Students' Anti-Korean Sentiment: Focused on Hostile Media Perception."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Sung-Sook, Park Chan-Ok, and Seol Hyun-Soo. 2009. "A Study for Validation of K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est Using the Rasch Measurement Model." *Korea Open Early Childhood Education* 14 (3): 517-556.
- Lee Byung-Jun. 2007. "What is Multicultural Competency." *Korean Educational Sociology Research Association* 37: 1-11.
- Lee Chul-Hyun. 2013. "The Development of the Multicultural Sensitivity Scale for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Course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6 (3): 131-156.
- Lim Do-Kyung. 2010. "A Study on Foreign Residents' Image of Korean and the Korean People." *Journal of Human Subjectivity* 20: 101-120.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2014. "Present Situation of Foreign Residents of Local Governments 2014." <http://www.mospa.go.kr>. Accessed October 16, 2015.
- Park Hye-Sook.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cultural Receptivity Scale Based on the Rasch Measurement Model."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7 (2): 453-477.
- . 2014. "Investigating Factors Related to Multicultural Receptivity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4: 5-33.
- Park Hye-Sook and Won Mi-Soon. 2010. "An Exploration of Variables Related with Multicultural Receptivit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 (2): 303-325.
- Seol Hyun-Soo and Kim Myeong-Sook. 2005. "Exploration of School Level- and Gender-Related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of the Computerized Aptitude Test for Youth."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18 (2): 79-100.

